

조선봉건왕조시기 철학에서 세계의 운동변화에 대한 유물론적견해

김 영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사람들의 관점과 립장은 오랜 력사에 걸쳐 발전하여 왔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9권 489페이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세계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운동변화의 합법칙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으며 그에 대한 견해를 제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세계에 대한 견해는 비록 미숙하고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고대시기부터 제기되어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었으며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와서 새로운 특징을 띠고 논의되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세계에 대한 견해에는 세계의 모든것이 기로부터 발생하고 그것이 자체로 끊임없이 운동한다고 보는 유물론적견해(기일원론)가 있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기일원론철학은 15-16세기 김시습과 서경덕에 의해 체계화된 후 17-18세기 장유, 임성주를 거쳐 실학자들에 의해 더욱 풍부화되었다.

김시습(호는 매월당, 1435-1493)은 기로 이루어진 물질세계가 끊임없이 운동변화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데 그것은 부단히 운동하기 때문이다.》(《매월당집》 권2 수진)고 하였다. 여기에는 모든 사물현상이 운동속에서만 존재할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측이 담겨져있다.

김시습은 운동의 원인과 합법칙성에 대해서도 일련의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는 사물의 운동변화의 원인을 음양의 호상작용으로 보았으며 사물은 일정한 도에 따라 운동변화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도는 사물의 운동변화의 합법칙성을 의미하였다. 그는 도를 지속성(질적상태를 유지하는것)과 가변성(질적상태가 변하는것)의 통일로 보면서 모든 사물현상은 필연적으로 이 두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운동과정에서 계승과 혁신의 관계를 인정한 합리적인 견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운동의 원인과 운동법칙에 대한 그의 견해는 자연발생적인 리해에서 벗어나지 못한것이였다.

서경덕(호는 화담, 1489-1546)은 기로 이루어진 물질세계가 끊임없이 운동한다고 하면서 이를 생생화화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서경덕은 하나의 기로부터 다양한 사물현상이 발생하는 과정을 기의 끊임없는 운동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태허의 일기가 미미한 운동으로부터 격렬한 운동으로 넘어가며 이 과정에 천지만물이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사물들도 미미한 운동으로부터 격렬한 운동으로 넘어가며 격렬한 운동에 의하여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

서경덕은 기가 끊임없이 운동한다는것은 기자체에 운동능력이 있기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문득 약동하고 문득 열리나니 누가 시키는것인가. 스스로 능히 그

렇게 하는것이다. 또 스스로 그렇게 안할래야 안할수 없다. ...동정하지 않을수 없고 열리고 닫히고 하지 않을수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것이다.》(《화담집》 권2 원리기)고 하였다. 그는 이를 자능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서경덕은 사물의 운동이 무질서하게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성을 띠고 진행된다고 하였으며 이를 리지시라고 하였다.

서경덕은 운동의 원인도 기자체에서 찾았다. 그는 기가 운동하게 되는것은 기안에 기들이 있기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기들이란 음양, 동정, 합벽, 수화와 같이 서로 련관되고 제약하는 관계, 대립관계를 의미한다. 즉 그의 견해에 의하면 모든 사물(기)은 대립물의 통일로 되어있으며 대립관계에 의하여 사물의 운동이 일어난다는것이다.

운동에 대한 서경덕의 견해는 운동의 원인과 동력을 물질자체에서 찾으려는 합리적인 견해로서 중세 변증법발전에 기여한 진보적인 견해였다.

물론 그 이전시기에도 우리 나라의 진보적인 철학자들은 물질의 끊임없는 운동변화를 인정하였으며 운동의 원인도 사물자체에 있다는 합리적인 견해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견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서경덕은 운동의 원인과 동력문제를 뚜렷이 제기하고 그것을 사물자체에서 찾고 설명하였다. 그의 이 사상은 세계철학발전에서도 의의있는 사상이며 운동의 원인과 동력을 사물밖에서 찾는 종교신비주의와 운동을 거부하는 형이상학에 이론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가치있는 사상이었다.

장유(호는 계곡, 1587-1638)는 기가 끊임없이 운동한다는 전제밑에 운동의 원인과 그 법칙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는 사물의 운동원인에 대하여 《시초와 종말은 서로 다르면서 그 변화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모두 그 기(기틀)가 그렇게 한다.》(《계곡집》1권 속천문)고 하였다. 여기에는 사물의 운동이 기속에 내포되어있는 서로 상반되는 음기와 양기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그의 견해가 반영되어있다.

장유는 사물이 자기 대립물로 전화하는것을 운동의 중요한 법칙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천지사이의 물건은 변화하지 않는것이란 하나도 없다. 레하면 초목은 처음에 날 때에는 맹아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변화하여 줄기와 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나중에는 잎사귀가 떨어진다. 이것은 한개 사물이 스스로 변화하는것이다. 어찌 사물만 이렇게 되겠는가. 천지와 같은 큰 자연도 역시 그렇다. 낮이면 밝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니 이것은 하늘의 변화이다.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고 여름이면 장성하고 가을이면 익고 겨울이 되면 없어진다. 이것은 한해의 변화이다. 처음에 천지가 열리어 거기에 혼돈한 물질이 있게 되니 이것은 하나의 근본적인 변화이다. 사람도 역시 그렇다. 처음에는 갓난아이던것이 점차 커서 기여다니고 말을 하고 걷게 되고 장년이 되며 나중에는 쇠약해지고 늙어서 죽는다. 변화하지 않는것이란 하나도 없다.》(《계곡집》 4권 화당설)라고 하였다.

모든 사물은 끊임없이 운동하며 운동의 원인이 사물자체에 있고 운동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장유의 견해는 합리적인 견해라고 볼수 있다. 그러나 운동에 대한 그의 견해는 많은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그의 견해는 소박성과 직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순환론적인 경향이 농후하였다. 그는 운동에서 상승적발전을 보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사회적

운동과 자연의 운동의 질적차이에 대하여서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장유와 임성주는 서경덕을 비롯한 선행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반동적성리학을 비판하고 중세 우리 나라의 기일원론철학을 더욱 발전시켰다.

장유는 사람을 포함한 우주자연은 오직 하나의 기로 구성되어있다고 하면서 《기는 본래 그것이 본체가 지극히 허한것으로서 시초도 종말도 없으며 그 크기에 있어서 한계가 없고 작기에 있어서 끝이 없다. 그러나 그 누가 그것을 없다고 하며 그 누가 그것을 죽었다고 하며 그 누가 그것을 낳는다고 할것인가. 천지만물은 모두다 기아닌것이 없다. 이것이 모이면 사물의 형체를 이루고 흩어지면 그 형체가 파괴된다. 사람들은 기가 모여졌다 흩어졌다 하는것은 알지만 그 본체는 유무가 없다는것을 알지 못한다.》(《계곡집》 권3 잡기)라고 하였다.

이것은 장유가 기를 지극히 허하면서 시초와 종말이 없고 크기와 작기에 있어서 무한한 특성을 가진 물질적실체로, 천지만물을 형성하는 시원적존재로 보았다는것을 의미한다.

장유는 이러한 속성을 가진 기를 무극자라고 보고 그것이 사람의 육안으로 볼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수도 없으나 도리어 실재하여 천지만물을 낳는것이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의 어머니이며 만물의 시초라고 하였다. 무극자란 무한히 작으면서 무한히 크고 시초와 종말이 없이 영원하며 천지만물이전에는 혼돈한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에 음양이 내포되어있어 그 작용에 의해 천지만물이 이루어진다는것을 의미하였다.

그는 기의 혼돈한 상태를 태허라고 하고 천지만물은 태허의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객관세계는 개별적사물현상을 놓고보면 끊임없이 발생소멸하지만 전체로서 보면 공간적으로 무한하다고 하였다.

장유는 천지만물의 발생을 기에 내포된 음양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설명하면서 리는 기에 내재한것이며 따라서 리에는 운동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즉 모든 사물은 자기자체의 원인에 의하여 끊임없이 운동한다는것이다. 그는 초목과 우주자연, 사람의 성장은 다 변하지 않는것이 없다고 하면서 천지사이에 모든 사물현상이 자기스스로 쉬지 않고 운동변화하는것을 합법칙적현상으로 이해하고 운동변화의 원인을 기들이 그렇게 하는것이라고 하였다.

임성주(호는 록문, 1711-1788)는 자연에 대한 견해에서 세계의 통일성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천지만물을 이루고있는것은 오직 하나의 기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우주사이에 우아래와 안팎이 없고 시초와 종말이 없이 가득히 차있어 허다한 조화를 일으키며 다양한 사람과 만물을 낳게 하는것은 다만 하나의 기이다.》(《록문집》 권19 록려잡식), 《원기는 우주자연가운데 충만되어 예나지금이나 일관하게 흐르고있으니 음양에는 음양의 기가 차있고 오행에는 오행의 기가 차있다. 사람과 사물 역시 기로 가득차있다.》(《록문집》 권2 답미요)라고 하였다.

그는 신이나 하늘, 리같은것도 다 기를 두고 하는 말이며 기밖에 그러한것이 따로 있을데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하나의 기로 이루어지고 부단히 운동변화하는 우주만물을 자연이라고 이해하였다. 여기에는 세계가 오직 하나의 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통일되어있다고 하는 철저한 기일원론적립장이 표현되어있다.

임성주는 세계의 통일성의 기초로 되고 천지만물을 이루고있는 근원인 기를 물질적

실체로 인정하였으며 그 성질을 기본적으로 서경덕과 같이 이해하였다. 그리고 운동을 기의 어길수 없는 속성으로 이해하면서 세계의 다양한 사물현상은 기의 끊임없는 운동변화를 통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것은 모든 운동변화의 담당자를 물질적실체로 보는 긍정적인 견해로서 운동능력을 리에다 부여하는 성리학적관념론에 대한 비판이다.

임성주는 하나의 기로부터 발생한 사물현상의 다양성을 기운동의 다양성에 의하여 설명하였으며 기의 운동이 자기 원인에 의하여 스스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천지자연가운데 크고 작고 정밀하고 거칠게 여러가지 운동변화를 일으키며 발생, 사멸하는것은 모두 오직 하나의 기가 자기스스로 그렇게 할 따름이다.》(《록문집》 권10 록려잡식)라고 하였다. 기와 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물현상의 끊임없는 운동변화를 인정하고 이것을 기자체의 원인에 의하여 설명한 임성주의 견해에는 소박한 변증법적요소가 담겨져있다.

임성주는 리기호상관계문제에서도 리가 기를 떠난 그 어떤 추상적인 법칙성이라고 하는것을 비판하고 기가 존재하고 운동하는것이 자기스스로 그러한것을 가리켜 리라고 부를 따름이라고 하였다.(《록문집》 권6 답김백고) 리를 자기스스로 그러한것(기의 자연처)이라고 한 임성주의 견해는 리를 기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실체로 전화시키고 거기에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한 리일원론에 큰 타격으로 되었다.

그는 자연에 대한 기일원론적견해 특히 리기문제에 대한 기일원론적견해로부터 출발하여 주희와 리황, 리이의 기멸론을 반대하고 서경덕의 기불멸론을 적극 옹호하였으며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임성주가 리를 더욱 신비화하여 천명과 결부시키고 기일원론철학을 박해하던 시기에 리일원론적객관관념론을 이론적으로 비판하고 기일원론철학을 고수발전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일원론철학은 이후 실학가들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면서 풍부화되었다. 실학파의 철학리론은 많은 경우 유물론적이 못되고 유교관념론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리기문제에 대한 추상적론의를 반대하고 자연현상에 대한 철학적견해를 제기함에 있어서 중세기적인 도식에서 현저히 벗어나 우주세계에 대한 자연과학적리해로부터 출발한것으로 하여 선행시기에 비해 새로운 요소들이 싹트고있었다

홍대용(호는 담헌, 자는 덕보, 1731-1783)은 기로부터 천지만물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면서 세계의 시초에는 물질적기가 있었을뿐인데 그로부터 천체들이 발생하고 지구가 형성된 다음에 만물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홍대용은 만물의 형성, 발생과 번식, 성장, 소멸과정을 기자체의 끊임없는 운동변화와 사물현상들의 호상연관 등 사물자체의 원인에 의하여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는 만물이 형성되기 전에는 균일한 상태의 기가 끊임없이 운동변화하고있었는데 기의 운동과정에 맑고 흐린것이 갈라지게 되었으며 그것이 모이고 응결하여 각이한 질을 가진 만물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담헌서》 내집 권1 답서성지론심설) 그리고 기로부터 만물이 형성될 때 처음에는 지구, 해, 달과 같은 천체가 형성되고 다음에는 기와 해, 지구의 세가지 요인에 의하여 만물이 발생하고 만물이 발생한 다음에는 모든 사물이 자체로 배태, 번식, 성장, 소멸한다고 인정하였다. 홍대용은 만물의 발생에서 기, 해, 지구의 세가지 요인을 비유하여 《지구는 만물의 어머니요 태양은 만물의 아버지요 하늘(기)은 만물의 할아버지》

(《담헌서》 내집 권4 의산문답)라고 하였다.

홍대용은 우주세계의 형성과정을 기로부터 먼저 단순한 형태의 사물이 발생하고 점차 복잡하고 고급한 형태의 사물이 발생하는 과정으로 인정하였으며 인간사회도 낮은 단계로부터 복잡한 단계로 발전하여왔다고 이해하였다. 홍대용은 기로부터 사물의 발생과정을 각각 다른 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였으며 태양의 질은 불이고 지구의 질은 흙이라고 하였다.

우주자연의 형성과정에 대한 홍대용의 견해는 천지만물의 발생과정을 태극과 음양5행의 도식에 의하여 설명하던 유교성리학자들의 견해와 다를뿐아니라 기의 운동변화의 원인을 음양의 호상작용으로 이해하던 전통적인 견해와 구별되는 새로운 시도였다. 홍대용은 우주자연의 발생과정에 대한 견해에 기초하여 5행설을 비판하였다. 그는 《불은 태양의 질이며 흙은 지구의 질인데 나무나 쇠는 태양과 지구에 의하여 발생, 성장하는것으로서 이것이 불, 물, 흙과 함께 동등한 자리를 차지하여 5행이 될수 없는것이다.》(《담헌서》 내집 권4 의산문답)고 하였다.

홍대용은 기로 이루어진 우주세계의 무한성과 무시무종성, 물질세계의 불멸성에 대하여서도 자연과학적인 리치와 자료에 기초하여 확증하였다.

홍대용은 리기문제에 대한 견해에서 기일원론적립장을 견지하였다. 그는 《천지에 짝차있는것은 기뿐인데 리는 그안에 있다.》(《담헌서》 내집 권1 계몽기)고 하였다. 홍대용은 리기문제를 많이 논의하지는 않았으나 기일원론적립장에서 해결하였다. 그러나 홍대용은 리에 추상적인 도덕의식을 부여하여 사람뿐아니라 기로 이루어진 모든 사물은 다 리를 가지고있으므로 인, 의와 같은 도덕의식이 있게 된다고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알수 없게 하였다.

박지원(호는 연암, 1737-1805)은 먼지(기)로 이루어진 모든 사물현상이 끊임없이 운동변화하는것은 필연적인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성인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것은 운이다. 차고 이그러지고 없어지고 자라고 하는것은 하늘의 운이고 외롭고 허하고 왕성하고 서로 돕는것은 땅의 운이다. 오래면 변화를 생각하고 낡으면 새로운것을 생각하며 극도에 도달하여 막히면 통할것을 생각하는것은 운의 계기이다.》(《연암집》권18 열하일기 망양록)고 하였다. 여기에서 박지원은 만물이 운동변화하는것은 객관적법칙이며 오래면 변하고 낡으면 새로운것으로 교체되며 한계점에 이르면 통하는것은 사물운동의 합법칙성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고있다. 박지원은 사물현상이 운동변화하는 원인을 음양이 서로 근원이 되어 이루어지는것이라고 하였다.

박지원은 사물현상의 운동변화에서 부정의 계기와 낡은 사물과 새로운 사물의 계승관계에 대하여서도 합리적인 추측을 하였다. 그는 식물을 실패를 들면서 종자는 식물로 전환되고 식물은 점차 자라서 성하면 다시 종자로 전환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종자에는 식물의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식물로 전환되는것은 일정한 계기를 통하여 실현된다고 하였다.

박지원은 새로 발생한 사물현상은 종전의 사물현상을 부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일정하게 계승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리치에 따라 문학작품창작에서도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창조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고창신을 강조하였다.

박지원은 사물현상들의 운동변화와 그 합법칙성에 대한 일련의 합리적인 추측은 하

였으나 사물현상들의 상승적발전의 법칙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물현상들의 운동변화를 질을 파괴하지 않는 변화 다시말하여 사물현상들의 본래의 상태를 파괴하지 않는 변화로 이해하였다.

박지원은 세계가 물질(먼지 혹은 기)에 의하여 통일되어있으며 자체의 원인에 의하여 운동변화한다고 생각하였기때문에 그 어떤 신비적인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종교미신 현상들을 반대하였다.

박지원은 무엇보다도 하늘에 뜻이 있어 인간의 운명을 비롯한 세상만물이 하늘의 의지와 명령에 좌우된다고 하는 목적론적견해를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세상에 물건으로서 극히 작은 털오리만 한것이라도 하늘이 내지 않는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하늘이 어떻게 일일이 다 명령을 해서 내겠는가.》(《연암집》 권14 열하일기 상기)고 하였을 뿐아니라 하늘은 본래 텅비어 끝이 없고 천지만물은 자기스스로 끊임없이 운동변화하는데 하늘에 어찌 뜻이 있어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만물을 재고 달고 하겠는가고 하면서 하늘의 의지를 단호히 부정하였다.

박지원은 하늘을 자연적인것으로 이해하였고 그밖에 자연세계의 모든것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그 어떤 신비적인 요인이나 정신적인 요인의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리규경(호는 오주, 1788—1863)은 우주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을 끊임없이 발생발전하고 소멸하는 과정으로 보면서 사물현상의 운동변화에서 발생하고 소멸하고 성하고 쇠하는 모순된과정이 서로 교체되고 전화하는것을 하나의 필연적법칙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하늘이 밝아올 때에는 갑자기 어두워진다. 꽃나무, 열매나무들이 죽기 한해전에는 반드시 꽃과 열매가 무성한다. 기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병들어 죽으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잠간동안은 건강한듯이 보인다. ...사람이 이 리치를 인식한다면 갑자기 어두워져도 두려워하지 않을것이며 갑자기 밝아져도 기뻐하지 않을것이다. 쇠의 극점은 성하는것의 계기이며 성하는것의 극점은 쇠할 징조이다.》(《오주연문장전산고》 권21 물성극쇠변증설)고 하였다.

리규경은 사물의 발전이 극점(한계점)에 이르고 그것이 변하여 또 다른 극점에 이르는 방법으로 끊임없는 극의 연속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만약에 극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장차 어느 극에 이르러 끝이겠는지 알수 없다.》(《오주연문장전산고》 권27 물극생변변증설)고 하였다.

리규경은 사물현상들의 변화발전의 원인을 자기 원인으로 보면서 자기 원인을 음양의 작용으로 이해하였다.

리규경의 변증법적견해는 당시의 조건에서 진보적의의를 가지었다.

그러나 그의 변증법적견해는 사물현상에 대한 소박한 이해와 억측에 기초한것이였으며 사물현상들의 발전과정의 필연적연계와 계승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물발전의 원인을 중세기적으로 음양의 작용에 의하여 설명하는 제한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최한기(호는 동강, 1803—1879)는 그자신의 지적발전수준과 그가 활동하던 사회력사적조건으로 하여 중세철학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당시 극도로 반동화된 유교성리학을 반대하고 우리 나라에서 형성발전되고있던 자본주의적관계와 근대자연과학의 성과를 반영하여 중세기 일원론철학과 실학사상을 한층 심화발전시켰으며 우리 나라 철학의 근대적발전을 위한 시초를 열어놓았다.

최한기의 철학사상에서 중요한것은 변증법적사상이다. 기에 의한 세계의 물질적통일성에 관한 사상과 인식론은 다 그의 변증법적사상과 련관되어있다.

최한기는 물질적기에 의한 천지만물의 전반적련관과 호상작용, 물질자체의 원인에 의한 세계의 끊임없는 운동변화와 발전을 인정하였다. 또한 인식에서 감성적인식과 이성적인식, 사고의 법칙과 사물의 법칙의 호상관계, 세계에 대한 인간인식의 절대적성격과 상대적성격, 지와 행의 호상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변증법적견해들을 적지 않게 제기하였다.

최한기의 변증법적견해에서 새로운것은 천지만물의 호상련관과 운동변화를 인정한데 기초하여 운동과 정지의 호상관계를 변증법적으로 설명하려고 한것이다.

최한기는 물질과 운동을 불가분리적인것으로 리해하였다. 그는 《세계에는 운동하지 않는 사물이란 없다.》(《인정》 권2 측인측정)고 하면서 천체로부터 사람 지어는 사람의 사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물현상은 다 운동하며 변화한다고 하였다.

최한기는 운동과 정지의 호상관계에 대한 견해도 제기하였다. 그는 운동의 절대성과 정지의 상대성을 주장하면서 《운동중에 스스로 정지가 있고 정지중에 스스로 운동이 있다. 이것을 분석하여 생각한다면 운동중에 운동, 정지중에 정지를 추측할수 있다. 운동할때에도 그 운동을 볼수 있으니 운동과 정지를 서로 분리시키지 않고 운동중에 운동, 정지중에 정지를 추측한다면 스스로 리해할수 있다.》(《기측체의》 추측론 권4 추동추정 동정호근)고 하였다.

최한기는 지구에서 천체를 관측한것도 정지한것가운데서 운동하는것을 관측한것 같지만 사실은 빠른 운동으로 느린 운동을 관측한것이라고 하였다.

운동가운데 정지가 있고 정지가운데 운동이 있다고 한 최한기의 사상에는 운동의 절대적성격과 정지의 상대적성격에 관한 리해와 운동과 정지의 변증법적호상관계에 관한 리해가 담겨져있다.

최한기는 모든 사물현상이 끊임없이 운동변화한다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력사도 변화한다고 하였으며 사회의 변천에 맞게 문물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모든 사물은 시간에 따라 운동변화하는것이니 사람이 세운 법제도도 마땅히 여기에 따라 변통하여야 한다.》(《인정》 권16 선인 변통선법)고 하면서 풍속, 습관, 교육, 정치제도를 비롯한 낡은 제도를 고칠것을 주장하였다.

최한기의 세계에 대한 변증법적견해는 봉건시기 기일원론철학을 종결짓고 우리 나라 철학사에서 중세철학과 근대철학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매개적역할을 놀았다.

이와 같이 조선봉건왕조시기 세계의 운동변화에 대한 유물론적견해는 유교성리학이 조선봉건왕조의 지배적인 통치사상으로 되어있던 시기 그에 반기를 들고 기에 의한 세계의 물질성과 운동변화를 주장함으로써 관념론적세계관에 타격을 주고 우리 나라 유물론 철학발전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